
2014년 특수상황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4. 11. 13. ~ 21.

2014년 특수상황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목적

- 지역별 특화자원 개발 및 지역간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선진국의 제도와 주요 사업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
-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 정책 발굴 및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여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도서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활성화 도모

※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분야

- DMZ의 효율적 보존 및 개발사례
- 슬럼화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
-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성공사례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례

□ 기간 : 2014. 11.13(목) ~ 11.21(금) / 7박 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연수일정)

날짜(요일)	방문지	연수내용
11.13(목)	인천→베를린	○ 이동 (인천→런던→독일 베를린)
11.14(금)	베를린	○ 독일 환경자연보호연맹 방문 - DMZ 효율적 보존 사례 연구 ○ 마리에보른 구 동서독 접경 검문소 방문 - DMZ 효율적 보존 사례 연구
11.15(토)	드레스덴 베를린	○ 드레스덴 구도심 견학 *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문 발표 장소('14.3.26) ○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베를린 장벽) - 1.3km의 장벽에 21개국 예술가들이 벽화를 남긴 야외미술관
11.16(일)	마드리드	○ 이동 (베를린→마드리드) ○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례 조사(마드리드 구도심)

11.17(월)	마드리드 톨레도	○ M30 도로 지하화 현장 방문 -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심 녹지 사례 조사 ○ 톨레도(세계문화유산) 효율적 개발 및 보존사례 조사
11.18(화)	몬드라곤	○ 이동(마드리드→몬드라곤) ○ 몬드라곤 협동조합 방문 -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성공사례 조사(스페인 7위 기업)
11.19(수)	바르셀로나	○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례 조사(귀엘공원, 성가족성당 등) ○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견학 - 전략적 도시재생사례 조사 (섬유산업지역→지식집약형 첨단도시) - 창조적 경제의 발상지 라발지구 현장견학
11.20(목) ~21(금)	바르셀로나 →인천	○ 이동(바르셀로나→런던→인천)

II

출장내용

□ DMZ의 효율적 활용방안

① 그리네스 분트

〈현황〉

- 회원수 : 500,000여명
 - * 유럽에서 가장 큰 기관(∼1986년)
- 구 성 : 16개 연방협의회체
- 목 표 : 생활권에 네트워크 구성, 종의 다양성 보존 등
- 운 영 : 정부기관은 아니나 자연보호청 보조금과 일반 기부금으로 운영, 정치적인 힘으로부터 독립된 기관



우리의 첫 방문지는 그리네스 분트였다. 그리네스 분트는 16개 연방정부체제로 구성되었으며 50만여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 하였다. 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연보호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받고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분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DMZ이며 길이는 1,393km, 전체 면적을 합치면 17,656ha라고 하였다. 1990년 통독 이후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분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독 후 동·서독의 자연보호단체 전문가 400여명이 만났으며, 개발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억제하고 중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분트의 약 87%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분트를 보존한 성공요인으로는 ① 관련 주민·기관과의 소통, ②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목표 설정, ③ 중앙기구와 각 지역지구의 네트워크 구성이었다고 하며, 통일 40년 전부터 조직을 갖고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성공을 발판으로 26개 국가에서 유럽 그린벨트(12,500km)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독일에서는 야생 고양이 보호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Q&A 1**DMZ 개발에 대한 주민 설득 과정(방향 설정)은?**

25년간 노력 중,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역사적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
 ※ (독일의 실수) 베를린 장벽 철거 →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모름

Q&A 2**환경단체와 행정기관의 협력방안은?**

독일도 환경단체와 행정기관의 갈등이 심했으나 대화로 해결, 성과가 있었기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Q&A 3**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는지?**

자연보호청 보조금+50만명의 보조금, 독립성을 위하여 큰 기업에서의 기부금은 거부

Q&A 4**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에게 해 줄 말은?**

본인도 독일이 통일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한국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 특히 DMZ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



그리네스 분트가 지향하는 사업



그리네스 분트 관계자 선물 전달

② 마이엔보른 구 동서독 접경검문소

구 동독 국경검문소로 서독은 물론 서베를린으로 갈 때 가장 거리가 단축되는 곳이었기에 동서를 오가는 전체 차량의 절반이 이곳을 통해 지나갔다고 한다.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여행자들을 위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1985년부터 100만명의 동독 주민들이 이곳을 거쳤다고 하며 이런 교류로 인하여 동독의 몰락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검문소에 상주하는 1,000여명의 경찰과 세관 직원들 모두는 동독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이들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색출했다. 또한, 서베를린으로 왕래하는 서독 사람들에게 대해 과속, 정차, 금지 물품 반입 등의 이유를 들어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다. 동독 입장에선 이 검문소가 당시에 외화벌이 역할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박물관에 전시된 '산속에서 망원경을 통해 감시하는 경찰',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군견 사진' 등이 당시 상황을 실감케 한다.

박물관의 규모는 7.5ha로 예전의 5분의 1정도의 면적만 남아 있지만 당시에 쓰이던 역사 속 기물들을 보수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당시 검문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설들을 보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단순 전시를 넘어 지역과 함께 분단시대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추정하고 통계를 내는 연구 활동도 하고 있다.

Q&A 1

불법 월경에 대한 대책과 처벌 방법은?

보증금, 물건 등을 담보로 하였으며, 검거되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심문을 받음 (80년대말 기준 정치범의 80%가 도망자)

Q&A 2

이산가족에 대한 교류방법은?

처음에는 노인들만, 85년부터는 자유롭게 허가

Q&A 3

통독 이후 빈부 차이로 인하여 불만은 없는지?

90년대에는 조금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음



베를린 지도



베를린 장벽 기념 벽화



마이엔보른 접경검문소

□ 도시재생사업

①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현황〉

- 혁신지구(22@ 프로젝트 단지계획) 개념 : 시 면적의 20%에 달하는 200만㎡의 섬유산업 몰락→5개 거점(mobile, media, design, bio, clean energy) 사업으로 변환
- 혁신지구 형성과정 : (1단계, 1986~1990) 방직산업 관련 번성, (2단계, 1990~1996) 전통산업의 몰락, (3단계, 1997~2000) 22@ 프로젝트 계획 수립, (4단계, 2001~현재) 22@ 프로젝트 시행
- 성과 : 925개 기업체 32,4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지식 커뮤니케이션 35%, 미디어 에너지 27%)

바르셀로나 혁신지구는 도심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부터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이 아시아 등의 성장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한다. 현장을 같이 시찰한 시청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바르셀로나 전체의 큰 위기였다고 하였다.

슬럼화된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시에서 2000년까지 수립된 계획이 22@ 프로젝트였다. 22@는 중의적 의미로 산업단지 22지구+22세기+인터넷을 상징하는 것이다. 개발의 핵심전략은 규제개혁을 통하여 공장 및 토지 소유주들과 협상하여 토지 소유 지분의 30%를 공공용지로 기부 받고 시는 70%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적율을 높여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과 개발규제를 완화하였고, 5개 거점 분야(mobile, media, design, bio, clean energy)를 지정하여 유치가 가능한 글로벌 대기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유치하고 있다. 단지 주변에는 기존 공장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시설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체계도 구축하였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사업의 놀라운 점은 주정부, 관련 분야 전문가, 토지 소유자가 협력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장기간 토지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고 블록별로 전문분야를 집중 유치하여 사업의 집중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하여 바르셀로나 시에서 전기차 무료 충전소, 가로등에 와이파이 공급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소각로의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재생산 시설, 지하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이나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스페인인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마드리드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젊은 층의 50%가 실업자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관광객 등 도시 전체에 사람들이 많았으며 상가도 활기차 보였다. 이유는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와 같이 주정부에서 산업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혁신지구 7,329개의 회사 중 약 60%가 새로운 회사이며, 9조 유러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한다.

Q&A 1

도시재생방식이 특이한 것 같은데? 집값 상승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 소유 지분의 30%를 공공용지로 기부 받고 시는 70%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적율을 높여 사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대학용지 등으로 활용. 처음부터 집값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산업+주거단지 혼합의 도시계획을 수립.

Q&A 2

기업 유치를 성공한 요인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전략은 대기업 위주로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중·소규모의 기업은 대기업을 따라온다는 생각이었음. 2000년 초기 계획을 확정할 때부터 인근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22@지구 예전 모습



22@프로젝트 구역 전경



22@프로젝트 도시계획

		
22@지구 공동구	22@지구 새로운 건물들	22@지구 미디어파크 광장

② 마드리드 M30도로 지중화

《현황》

- 마드리드 현황 : 스페인 수도, 605.77km²(서울 605.25km²), 인구 350만명, 연강수량 419mm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큼
- M30 프로젝트 : 교통정체가 심한 남측구간에 기존도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대심도 지하 터널 연장의 13%인 8.65km 건설('04.9월~'07.5월)
- 효과 : 교통량 5% 감소, 차량운행속도 2% 개선, 매연 80% 감소, 지하화 구간 상부에 공원 등 조성(100만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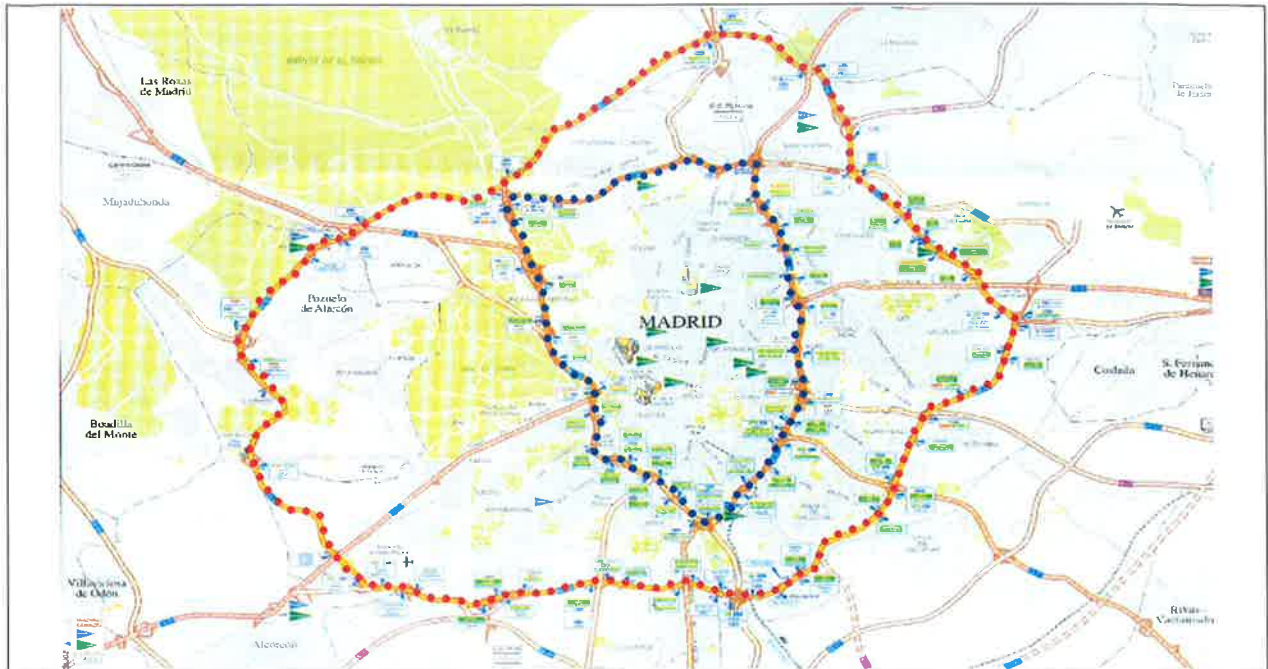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로서 복잡하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의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M30, M40, M50도로를 계획하고 원형으로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시를 형성하였다. M30도로는 1920년대부터 계획하여 1970년대 초반에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강과 대형 공원을 따라 도로의 선형이 결정되고 개발되어 강변과 공원을 단절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M30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2004년 9월에 시작하여 2007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교통정체가 심한 남쪽지역에 기존 도로를 대체하여 연장의 13%에 해당하는 8.65km의 대심도 터널을 이용한 새로운 지하도로를 만들었으며, 상부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마드리드가 강우량(연평균 약 400mm)로 수위의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하화 이후 교통량이 5% 줄고, 차량 운행속도는 2% 개선되었으며 매연은 80%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 느낀점은 도로 위 넓은 공간이 주민들의 도심 쉼터로 제공되도 있다는

것이였다. 오랜 도시에서 녹지 공간은 확보되기 어려웠으며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수변 및 녹지공간에서 주민들은 운동, 산책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지하화에 대한 단점도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녹지 공간의 연결이나 슬럼화된 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등으로 부분 적용하기에는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였다.



마드리드 도로망도 M-30(시내지역/파랑점선), M-40(외곽지역/빨강점선)



M-30 도로 개설 전(좌) 후(우)-도로를 지하화후 기존도로 공간에 녹지 조성

□ 협동조합

① 몬드라곤 협동조합

〈현황〉

- 위치 : 바스크 지방- 북부 스페인
 - ※ 협동조합 개념 :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
- 현황 : 74천명의 협동조합원, 110여개 기업 운영(노동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함)
 - ※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의 해고가 없었으며,
비정규직은 전체의 15%이내로 채용하며, 급여나 처우가 정규직 직원과 동일
- 특성 : 스페인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연 매출 250억 달러, 평균)
 - ※ 스페인 전체 기업에서 7위에 해당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배우기 위하여 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제일 먼저 소개받은 것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주임신부의 두상이었다.

협동조합은 호세 마리아 신부로부터 탄생되었으며, 여기에서 호세 마리아 신부는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호세 마리아 신부는 스페인 내전으로 인구의 80%가 떠난 바스크지역 몬드라곤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1943년 이 지역을 다시 일으키고자 10대 소년들에게 기능과 산업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기술학교를 만들었고, 1956년 5명의 제자와 함께 작은 석유난로공장 울고(ULGOR)를 설립하였으며, 이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시작이라고 했다.

※ ‘울고’란 이름도 그가 가르쳐온 제자 5명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임

먼저, 홍보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방문을 많이 했던지, 우리나라말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사람들이 이곳을 참 많이 방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동영상 시청 후 우리에게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소개해 준 사람은 협동조합 센터 담당과장 ‘미스터 말레’였다.

그는 협동조합 센터에서만 33년을 근무하였고, 협동조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가 근무하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센터에는 총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하는 일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은 각 회사별 조합원 자리배치(일자리 제공)라고 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①공업(제조), ②지식, ③금융, ④유통 등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공업(제조)분야는 협동조합에 가입된 모든 110여개 회사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회사는 이익금의 10%를 기부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어려운 다른 기업을 도와준다고 했다.

이익금의 나머지 90% 중 45%는 예비비로 45%는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으나, 조합원은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소득분배가 철저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조합원은 퇴직 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질문1 그 많은 조합원의 복지비용, 퇴직 조합원의 연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텐데, 그 비용은 어찌 감당하는지. 그리고, 센터가 지정해준 일터가 조합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레과장 답변

조합원은 월급의 40%를 복지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그리고 조합원에게 일터를 지정해 줄 때 세 번의 기회를 주며, 세 번째에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답변해 주었다.

두 번째, 지식분야

즉,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몬드라곤 대학교의 학비는 5,000유로이며, 학생이 원할 경우 4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 공립학비 : 1,500유로 / 사립대학학비 : 12,000유로

몬드라곤 대학교는 스페인에서 수재 소리를 들어야 입학할 수 있다면서, 그의 아들도 보내고 싶었으나, 공부를 못해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세 번째, 금융분야로 '까하 라보랄(Caja Laboral, 노동금고)'이라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다.

이 신용협동조합은 이후 수많은 협동조합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고, 개인대출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고 키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현재 까하 라보랄(Caja Laboral)은 출자금만 200억 유로에 달하는 스페인 5위권 대형 은행으로 바스크 지방에는 동네 곳곳에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들이 새로운 협동조합 방식의 서비스기업 등을 설립할 때 수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는 '인내자금'이라는 특별기금을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유통분야..

이곳에서 유통의 대명사는 '에로스키'이다.

에로스키를 둘러보니,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를 연상하게 했다. 단,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고용된 것에 비하여, 에로스키는 직원이면서 사장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말레과장은 그곳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 어느 사업가에게 물어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창출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 수입은 더욱 평등하게 분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유이죠. 우리는 사업가이자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들처럼 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장이고,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협동조합은 세계노동시장의 미래입니다.
- 일반회사의 경우,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며, 교대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집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회사를 운영한데 있어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결국은 당신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일반 자본주의 회사에서 뒤흔들리게 되면 당신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몇몇 협동조합들은 다른 기업들 보다 우수하지만, 자본주의 회사처럼 당신이 거리에 나앉게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저는 협동조합 가족 중 두 번째 세대입니다. 저의 자매들과 저는 Fagor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었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이끈 힘이다.

한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동이 이 회사를 이끈 것이다. 일반기업처럼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체적인 수익을 이루어 지금처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자라는 '네트워크'라고 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갔으며, 그렇게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웠다.

이번 몬드라곤 협동조합 방문을 통해 느낀 것을 우리나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서로가 같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람끼리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알고 도와야 하며,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서로의 믿음(신뢰)을 형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을 말이다.

		
고속도로 전경	몬라라곤 본사에서 본 전경	협동조합 운영하는 마트

□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① 드레스덴

〈현황〉

- 베를린 남쪽 약 189km 지점에 위치
- 엘베강에 의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나뉘며 7개의 교량에 의해 연결
- 게르만의 식민에 의하여 1,200년 이전에 성이 구축되었고 1,206년에 도시가 형성
-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영 공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시가지는 궤멸되었으나 현재 유서 깊은 옛 건축물은 거의 복구

드레스덴은 인구 50만의 도시로 베를린에서 약 189km로 떨어져 있으며 체코 프라하와 인접하였다. 엘베강에 의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이 나뉘어지며 구도심에 대한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주 교통수단은 트램이었으며, 차량 통행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하였다.

구도심 전체는 사암계통의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근래에 건립된 호텔, 상점, 주거공간이 적절히 조화되었다. 사암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으로 색깔이 검게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인지 도시 전체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피렌체의 붉은색, 파리의 회색과 같은 도시만 보다 검은색의 도시를 보니 좀 색다른 느낌이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과 풍화된 검은색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에도 복원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독일은 전쟁으로 근대유산이 없어서인지 우리가 방문하는 날에는 날씨가 쌀쌀함에도 많은 방문객이 있었다.

드레스덴에서 느낀 점은 전통과 현재를 조화하는 방식이다. 구도심에는 옛 방식으로 보존을 진행하고 신도심에는 현재에 맞게 도시가 형성되었다. 엘베강에 의하여 경계가 나뉘어지며, 전혀 다르게 관리되는 느낌이었다. 또한 드레스덴 경찰서처럼 관공서가 대부분 오래된 건물에 입주한 것이었다. 그만큼 행정에 대한 권위와 자부심이 강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다.

		
관공서 전경	드레스덴 전경	선물코너

② 톨레도

《현황》

- 톨레도(스페인어: Toledo, 라틴어: Toletum)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 중부의 도시
- 스페인의 옛 수도로 펠리페 2세가 궁정을 마드리드로 1561년 이전
-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
- 철제 생산과 특별히 검 제작으로 유명

톨레도는 스페인의 옛 수도로서 도시 전체가 1986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주위를 따론강이 감싸고 반대편은 절벽으로 형성되어 천혜의 요새였다. 덕분에 도시의 확장이 불가능하여 스페인의 수도였으나 마드리드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주변에 황토가 많아 도시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었다.

스페인 역사를 대변하듯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도시 전체를 조망했을 때 고딕, 로마네스크, 이슬람 형태의 건축물이 보였으며, 경사지에 건립되었으므로 구불 구불한 골목이 많아 현대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구조였다. 그러나, 관광객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관광지였다. 골목 사이에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되어 아기자기한 느낌도 주었다.

이번 연수에서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전통,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불편하지만 옛 것을 보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닥은 돌로 만들어졌고 골목은 좁으며 건물은 오래되어 설비나 냉·난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개발에 대한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생각한다.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대지위에 건물을 올린다. 옛것은 흔적조차 없고 전혀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톨레도는 그렇지 않았다. 거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필요했으나 가파른 경사 때문에 계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을 것이다. 톨레도의 해결방법은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3군데 경사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외부에서는 주차장,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파손은 최소화하고 경관은 보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오랜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다.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개발방식을 도시재생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관련자를 설득하고 비용도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다. ‘톨레도의 개발방식을 우리의 지역개발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톨레도 전경	골목	에스컬레이터

③ 바르셀로나(귀엘공원, 성가족성당)

《현황》

- 에스파냐 카탈류냐 자치지방 바르셀로나주 의 주도
- 문화·경제의 모든 면에서 수도인 마드리드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함
- 안토니오 가우디
 - (귀엘공원) 1895년 교외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 15ha의 땅에 300~600평 크기의 택지 60개를 만들, 3개 필지만 분양되어 1922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변경
 - (성가족성당) 1882년 착공 2026년 완공 예정, 고딕 양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리나라 도시의 원형은 무엇일까? 가끔 생각해 본다. 도심이든 주변지역이든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철과 유리로 된 현대형의 상업형 건물과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만이 있다. 편리성과 속도성만을

추구하여 만들어졌으며, 도시의 원형을 굳이 찾는다면 우리의 전통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것이 빠를 듯 하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여 처음 느낀 것은 가우디의 도시라는 것이다. 현대에 지어지는 모든 도시 시설물들에서 가우디를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도심 놀이터의 벤치도 가우디의 디자인을 차용하였다.

바르셀로나 첫 번째 방문지는 귀엘공원이었다. 바르셀로나 북쪽 외곽 구릉지에 위치하였으며, 당초 택지를 조성하여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3개 필지를 제외한 모든 택지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명성에 맞게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었다.

가우디가 자신의 건축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이 베풀어 주는 매우 균형된 자연적 구조'라는 말이 있다. 귀엘공원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 골목, 돌담길, 벤치 등을 자연을 형상화하여 균형된 구조로 만들어 냈다. 바닥에는 돌을 세로로 쌓아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으며, 구조체에는 자연적 다양한 디자인과 시각 보정기법을 반영하여 균형잡힌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디자인 하나하나 매우 특이하였으며 독창적이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바르셀로나 도시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성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사업에도 바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로 지역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을 한다면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가족성당은 시내에 있었다. 어디서나 보이는 높은 건물이었으나 가까이 갈수록 입면에 표현된 상세 디자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귀엘공원에 표현되었던 자연적 요소들이 성가족성당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이다. 가우디 생전에 만들어졌던 입면이 현재 만드는 입면보다

훨씬 자연적인 느낌이었다. 내부는 거의 완성되어서인지 공사 중인데도 내부를 개방하고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비치는 빛에 의한 성스러움, 높은 천정과 큰 기둥에 의한 위압감, 다양한 신적 요소 등 고딕 양식에서 느끼는 성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신 앞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가하였다. 저절로 허리 굽히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

성가족성당은 1882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물을 만드는데 144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통 건물을 만들 때 준공시점을 정하고 거꾸로 공정을 맞춘다. 급하게 하다보니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수밖에 없다. 경제성을 먼저 고려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개발 사업도 단순 개발이 아닌 도시의 원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 자연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면 바르셀로나 같이 세계적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및 정책 반영사항

① DMZ의 효율적 활용방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독일 통일 후 접경지역은 산업화·도시화를 통해 통일 독일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통일 전 서독의 기업유치 장려 및 지원책이 통일 후 중단되면서 기업이 서독내부로 이전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일자리 및 인구감소, 경제력 저하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독일은 접경지역 성격에 걸맞지 않은 산업의 진입을 막고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분트)가 상호 협력하여 그뤼네스 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길이 1,393km의 옛 동·서독 국경지대를 자연 보호지역으로 묶어 생태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친환경 생태관광 상품(산책로, 싸이클 코스 개발, 카누, 탐험공간 개발, Youth Work Camp, 가족캠핑 등)들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존과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접목방안]

한국의 접경지역은 독일과 처한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남·북이 중무장을 하고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 구역 설정에 따른 많은 규제들로 인해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을 통해 벤치마킹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DMZ 지역중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보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묶고, 상대적으로 동식물 서식지로 덜 중요한 곳은 독일처럼 자연,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친환경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비무장지대와 DMZ 곳곳에 산재한 전사유적지, 그리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살아 있는 냉전박물관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안보관광 명소로 개발함에 부족함이 없을 거 같다.

또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경선을 따라 있던 장벽, 감시탑 등을 제거함으로써 냉전시대의 역사적 산물인 소중한 유적지를 잃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리엔 보른 국경검문소,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등 모두 분단시대의 유적지로 관광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DMZ 인근에 있는 철책, 검문소, GOP, GP등을 잘 보존하여 로 향후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안보관광 명소로 이용해야겠다.

②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요건]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은 문화적 수도가 되고자 하는 카탈루냐의 수도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어 도시재생에 따른 시민 공감대가 커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도시 발전전략의 전략을 예술분야에만 한정하는 협의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도시개발, 산업, 교육, 복지 등 여러 가지 정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종합적인 도시발전 전략으로써 문화를 포괄하는 정책 필요하며,

지역문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행정주체 뿐 아니라 기업, 개인,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각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은 자금의 지원, 창조적 장소 제공(발표장소, 공연장 등)하는 등 행정의 역할 변화 필요하다.

③ 협동조합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유사한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운 것은 이러한 많은 마을기업 등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필요한 것은 서로 구매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마을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국가는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해야 하며, 마을기업 경영자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

몬드라곤 협동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로 매달 월급의 40%를 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조합원은 퇴직 후 받던 월급대로 매달 월급같이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것은 7만 4천여 명 조합원과의 약속이라고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원이 이처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중앙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7만 4천여 명의 거대한 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본다.

④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전통과 현재, 개발과 보존의 조화]

우리나라의 개발방식은 너무 경제성만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 주변은 아파트 숲으로 뒤덮였고 30~40년만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가 이번 연수에서 방문했던 드레스덴과 톨레도에서는 전통과

현재, 개발과 보존의 조화하는 방식을 배웠다. 드레스덴은 1,200년 초에 도시가 형성되었으므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은 쉽지 않은 과제였을 것이다. 구도심은 철저하게 옛 방식으로 보존을 진행하고 신도심에는 현재에 맞게 도시를 형성하였다. 그 사이를 오래된 다리와 트램으로 연결하였다. 톨레도 또한 개발과 보존의 아주 좋은 표본이다.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이 지하 주차장과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였다. 입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는데 문화유적과 경관의 파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한 것이다. 경제성 보다는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다.

[도시의 원형을 만드려는 노력]

우리나라도 매우 좋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하여 한 자리에서도 다양한 경관을 만들며 경주 불국사, 부석사 무량수전 등은 세계인을 감탄시킬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훌륭한 유산을 도시나 지역개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자연을 담은 건축 작품은 바르셀로나를 바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귀엘공원의 벤치, 돌담 등은 시내 곳곳에 녹아들어 도시의 요소가 되었다.

우리도 지역개발 사업에서 원형을 만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만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만들 수 있으며 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